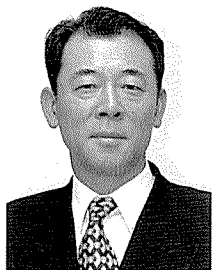


종합

대한제과협회 22대 회장에 고진곤씨 긴급 이사회서 협회 정관에 의거 선출



대한제과협회는 지난 11월 7일 서울 캐피탈호텔에서 긴급 이사회를 개최하고 품파도르과자점의 고진곤 사장을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다.

협회는 전임 권상범 회장이 일신상의 이유로 사임을 표명함에 따라 잔여 임기 보선을 위한 이사회를 열고 '회장 유고 시에는 부회장이 이를 대행하며, 부회장이 다수일 때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는

협회 정관 제14조 3항에 의거해 고진곤씨를 새 회장으로 선출했다.

신임 고진곤 회장은 전임 회장의 잔여 임기인 내년 2월까지 회장직을 수행하며, 2001년 제 36차 정기 총회에서 차기 회장이 선출된다.

고진곤 회장은 이날 이사회 회장 수락 인사에서 "전임 회장의 사임으로 갑작스럽게 회장직을 맡아 어깨가 무겁다"며 "잔여 임기 동안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 협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종선 sunpark@mbakery.co.kr〉

제과협, 모박쇼 연수단 모집 오사카·벳부 4박 5일 일정

대한제과협회는 내년 2월 22일부터 25일까지 오사카에서 개최되는 모박쇼에 참가할 연수단을 모집한다.

2월 21일 출발하는 4박 5일 일정의 이번 연수에서는 '21세기 식문화'를 주제로 각종 제과 제빵 기계 및 원부재료가 선보이는 모박쇼를 참관하고, 오사카 지역의 도톤보리·니혼바시 등 유명 제과점과 벳부 지역을 둘러보게 된다.

4박 5일 일정 연수비는 119만원이며, 참가 희망자는 1월 13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자세한 일정 및 내용은 55쪽 참조.

신청: 대한제과협회 2273-1830

〈박종선 sunpark@mbakery.co.kr〉

스위스브랑제리로 상호 변경 브랑제리 전담 운영 가능성 높아

스위스식품이 (주)스위스브랑제리(대표 박영조)로 회사 이름을 바꾸고 새롭게 출발한다.

회사명 변경에 대해 이 회사 한 관계자는 "브랑제리 매장을 여러 업체가 운영해 가격과 제품에서 차이가 났었다"며 "스위스식품을 통해 제품의 질을 높이고 기술 투자를 늘리는 등 전체적인 제품 향상을 위해 롯데마그넷 측과 연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신규 브랑제리 매장에 대해서는 스위스브랑제리가 운영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스위스브랑제리는 기존에 운영해오던 '빵드비' 가맹점은 현행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오형석 ohs@mbakery.co.kr〉

돌로미티, 비수기 판촉전 돌입 신메뉴 출시, 경품·쿠폰혜택 제공

(주)돌로미티가 아이스크림 비수기를 맞아 본격적인 판촉전에 돌입했다.

이 업체는 과일, 후레이크를 아이스크림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과일장식 아이스크림 '푸르젤라'와 과일 원료를 사용한 '무스케이크' 4종류를 선보이고, 과일 크림이 들어간 소형 만주 '돌로빵'을 롯데 잠실 직영점에서 시범 판매할 계획이다.

또 10월 13일부터 전국 매장에서 올해말까지 실시되는 아이스크림 대축제에서 응모권 추첨을 통해 이태리 왕복항공권, 장학금 50만원을 지급하는 등 다양한 경품을 제공한다. 이밖에도 쿠폰 행사를 통해 할인 혜택을 주고, 구입 횟수에 따라 무료로 제품을 제공한다.

〈강인옥 inok@mbakery.co.kr〉

브레드가든, 치즈케이크축제 12월 10일까지 4주간 전매장서 실시

홈베이킹 업체인 브레드가든이 11월 13일부터 12월 10일까지 제3회 '치즈케이크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전국 15개 매장과 마산 신세계 케익 공방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에 대해 이 업체 이환수 과장은 "세계 유명 치즈회사인 크라프트(Kraft)사와 제휴, 필라델피아 크림치즈를 이용한 케이크·요리 개발에 힘쓰고 있으며 페스티벌은 국내 치즈케이크 문화 보급을 위해 열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트리플 치즈 플레첸, 초코치즈 머핀 등 크림치즈를 이용한 케이크와 쿠키 만들기 강좌가 진행되며, 참가 쿠폰 추첨을 통해 고객에게 경품도 제공한다.

〈강인옥 inok@mbakery.co.kr〉

종합

올해 수능 특수, 지난해보다 부진 불경기와 팬시 제품 판매 감소가 원인

올해 수능 특수는 전반적으로 지난해와 매출이 비슷하거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수능 특수가 저조한 것은 전반적인 경기 침체에 의한 구매력 감소에 주원인이 있고 다양한 팬시 제품도 모양에 비해 품질이 떨어져 고객들에게 외면 당했기 때문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의 얘기다.

프랜차이즈업체의 집계 결과 3,000원~5,000원대 상품은 학생들의 구입이 대다수였으며 1만원~1만 5,000원대의 중·고가 제품은 부모들이 선물용으로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제과점은 수능 특수 준비 상황에 따라 희비가 엇갈렸지만 전년도와 비교해 평균 20% 이상 매출 하락을 기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업체별로 살펴보면 고려당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의 판매고를 보였으며, 신라명과와 크라운베이커리도 전체 매출액은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조금 하락한 것

로 나타났다. 파리카라상은 제품 가격을 고가로 구성하고 다양한 자체 세트 판매에 힘입어 수량은 76% 정도 늘어났고 전체 매출도 70% 이상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프랜차이즈업체가 불경기 속에서도 지난해와 비슷한 매출을 보인 반면 자영제과점은 전반적인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대형업소의 경우 수능 상품을 자체 제조하는 곳이 그렇지 않은 점포보다 높은 매출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점포의 한 관계자는 “도끼, 포크 등 팬시 상품은 속의 내용물의 품질이 떨어져 결국에는 점포의 이미지까지 떨어뜨린다. 직접 생산한 제품의 경우 신뢰성을 줄 수 있어 고객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밝히 경기의 침체에 인한 매출부진과 팬시 제품의 선호성 감소가 이번 수능 특수의 두드러진 특징으로 나타났다.

〈정한상 jeong@mbakery.co.kr〉

중앙기계, ‘업그레이드 200’ 출시 복합 디자인으로 매대 기능 겸비

중앙제과기계산업(대표 유동식)이 매대 기능을 겸비한 다용도 쇼케이스인 ‘업그레이드 200’을 출시했다.

이 쇼케이스는 기존의 케이크 쇼케이스와 달리 독특한 개방형 모형으로 제품 접근성이 높은 것이 장점이다.

특히 오픈 구조이지만 2층 선반의 제품에 냉기가 고르게 전달돼 파운드 케이크 등을 진열하도록 설계돼 있다.

이번에 출시한 쇼케이스는 유럽에서 개발한 최신형 스타일로 매장의 공간 활용성이 우수하고 매출 상승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한상 jeong@mbakery.co.kr〉

세일제과산업 본사이전

세일제과산업(대표 조현욱)이 지난 10월에 경기도 화성군으로 이전했다.

주소: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병점리 822-25

전화: (031) 225-3001, 9751~5
서울충관 (02) 2248-07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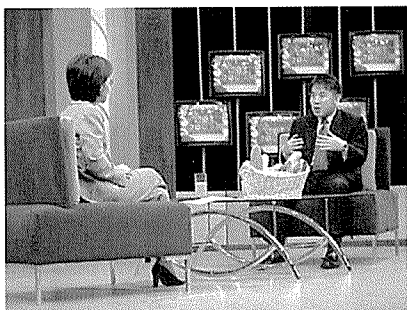
미국우유수출협의회 이전

미국유제품수출협의회(USDEC) 한국 대표사무소가 사무실을 강남구 신사동으로 이전했다.

USDEC는 미국내 유제품 생산자와 가공업자 등의 이익을 대변하는 곳으로 미국 유제품 생산업체 80% 이상을 대표하는 조직이다.

주소: 서울 강남구 신사동 594-13 한국문헌연구소빌딩 2층
전화: (02)516-6893

베이커리존 ‘e채널’ 방송 출연 베이커리 인터넷업체로는 처음 소개



베이커리 전문 포털사이트 베이커리존(www.BakeryZone.co.kr)이 케이블 TV 인터넷·정보통신 전문 방송 e채

널의 Net People에 소개된다.

정보통신 분야 선두업체 대표를 초대해 사업방향, 성공사례 등을 듣고 IT 분야 정보를 전달하는 Net People에 베이커리 관련 인터넷 사이트업체로는 베이커리존이 처음 출연하게 됐다.

이 프로그램 열번째 게스트로 초대된 베이커리존 지종민 사장은 제조업과 온라인 사업의 접목, 웹을 이용한 수출화로 모색, 국내 제과점을 대상으로 한 B2B 사업 등에 관해 이야기 나눌 예정이다. 프로그램은 12월 5일 12시에 방영된다.

〈강인욱 inok@mbakery.co.kr〉

유통

할인점 입점 경쟁 갈수록 뜨겁다

작년 1.5배 팽창해 생존경쟁 치열할 듯

대형 할인점 업체들이 대대적인 점포 확산에 나서고 있다.

올해 10월까지 40개 점포가 개점했으며 연말에 개점하는 7개점을 포함하면 모두 47개 점포가 개점할 것으로 예상돼 한해 최대 출점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E마트는 12월 목포점 개점을 포함, 올해 7개점을 오픈한다. 이 업체는 2004년까지 모두 75개점을 개점해 전국적으로 확고한 점포망을 구축해 선두를 고수한다는 전략이다. 한국까르푸는 지난해 5개를 개점한데 이어 올 연말까지 20여개 점포를 구축하며 내년에도 목동점 개점을 시작으로 5개점 오픈을 계획하고 있다.

영남권 지역을 발판으로 성장을 지속해온 삼성홈플러스는 올 후반기에 수도권에 입성, 경기·서울지역에 대한 공략

을 서두르고 있다. 올해 5개점을 입점한 이 업체는 내년에 8개 점포를 추가 개점함으로써 모두 15개의 점포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10월까지 8개점을 개점한 마그네티는 내년까지 모두 30여개의 출점을 계획하고 있어 전국적인 점포망을 구축한다는 전략이다.

LG마트는 올해 서울 송파점과 춘천점을 개점했으며, 12월 양재점을 개점할 것으로 알려진 코스트코 홀세일은 1997년 이후 해마다 1개점씩 개점해 꾸준히 점포를 확산하고 있다. 이외에도 지방에 근거를 두고 있는 중소 규모의 할인점들도 지속적인 점포 확산을 꾀하고 있어 내년에도 할인점간의 치열한 유통시장 입점 경쟁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형석 ohs@mbakery.co.kr〉

호텔 베이커리 매출 하락 불경기와 파업에 따른 영향 커져

호텔베이커리가 경기 침체와 파업 여파로 매출이 하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현상은 외부에 진출한 호텔 베이커리 뿐만 아니라 호텔 내의 델리셔도 비슷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와 힐튼호텔의 경우 파업이 끝나기는 했지만 예약 취소 등 그 영향이 지금까지 미쳐 10% 정도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서울의 주요 호텔들도 불경기로 인해 적지 않게 매출에 영향을 받고 있다. 호텔의 한 관계자는 “고급 제품이 안 팔리는 것은 아니지만 입점 고객 수가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조선히otel의 대표적인 외부 베이커리인 데이 앤 데이도 입점 고객 수의 감소와 객단가의 하락으로 매출이 감소했다. 이밖에 프라자호텔과 신라호텔의 외부 베이커리도 불경기로 인해 매출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한상 jeong@mbakery.co.kr〉

월마트, 영남권에 첫 진출 대구 입점 ... 베이커리 직영 이어가

월마트가 10월 27일 대구에 6번째 매장인 시지점을 개점함으로써 영남권 진출의 발판을 마련했다.

이번 시지점은 1만 2천평 부지에 매장 면적 3,500평 규모로 지하 2층, 지상 7층의 대형 건물이다. 베이커리 매장

은 지하 2층 식료품 코너에 속해 있으며, 약 100여 제품을 생산·판매한다. 영남권 첫 개점이 되는 이번 시지점은 베이커리 매장의 경우 공장 70평을 합쳐 총 120평에 이르는 매머드급이다.

현재 10명의 공장인력과 7명의 판매직원이 2교대 근무를 하고 있는 월마트는 1호점 개점 이래 베이커리 사업을 계속 직영하고 있으며 내년에 영남권 재입점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며 지역 상권 공략을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형석 ohs@mbakery.co.kr〉

마그네티, 대구·경북지역 진출 16호점 개점으로 경북권 교두보



롯데마그네티가 지난 10월 13일 서구 내당동에 16호점을 개점했다.

이 매장은 지하 2층과 지상 6층 건물로 연면적 9,500여 평, 매장 면적 2,300평 규모다. 16호점에 입점하는 인스티어 베이커리인 브랑제리는 30여평 매장에 제품 수 60여종이 생산되며 13명이 2교대로 근무한다.

이번 개점으로 마그네티는 대구·경북권에는 처음 진출하게 되며, 앞으로 이 지역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마그네티는 앞으로 대구 지역에 상인점과 수정점 등을 개점할 예정이어서 이번 서대구점을 시작으로 이 지역 공략을 본격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오형석 ohs@mbakery.co.kr〉

학교 / 학원

혜전대 · AIB 교육협정 체결 내년부터 통신강좌교육 실시

혜전대학 호텔제과제빵과는 미국제빵연구소(American Institute of Baking)와 교육협정 조인식을 갖고 내년부터 통신강좌교육을 실시한다.

통신강좌교육이란 우편이나 방송을 통해 일정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것으로 혜전대는 AIB의 교육자료를 통해 국내에서도 정규과정을 수료할 수 있도록 1년 과정의 프로그램을 개설할 예정이다.

혜전대 조남지 교수는 "수강생들이 통신강좌를 통해 배운 교육내용을 복습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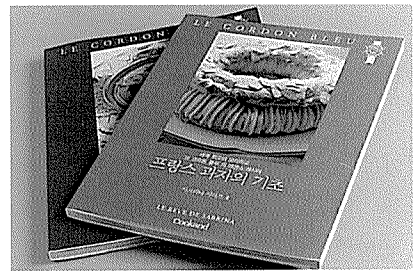
수 있도록 매년 1회 AIB에서 강사를 파견할 예정이며, 혜전대 졸업생 중 2명에게 AIB 현지 정규과정의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협의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교육협정으로 아시아의 AIB 에이전트 역할을 담당하게 된 혜전대는 중국에 진출하는 미국 회사가 증가함에 따라 미국 식품위생규정에 맞춰 이들 회사의 식품위생검사를 대행할 국내 전문인력 육성을 비롯해 AIB 유학 알선도 겸할 계획이다. <강인옥 / inok@mbakery.co.kr>

터 교육한다. 문의 (02)3481-8436~8

<이경은 kelee@mbakery.co.kr>

월간 쿠키, '사브리나' 시리즈 출간 제과 제빵 · 요리, 유명 레시피 수록



'월간 쿠키' 이 프랑스 '르 코르동 블루'의 에센스 레시피를 번역한 '사브리나 시리즈'를 단행본으로 출간했다.

이번에 출간된 '사브리나 시리즈'는 모두 2권으로 1권은 '프랑스 요리의 기초', 2권은 '프랑스 과자의 기초'로 구성되어 있다. '프랑스 요리 기초'에서는 현대 요리들과 정통 요리가, '프랑스 과자의 기초'에서는 유명 제과점의 맛을 그대로 재현할 수 있도록 기초 요령에서 응용법까지 소개하고 있다.

<오형석 ohs@mbakery.co.kr>

크리스마스케이크 만들기 행사 크라운인스티튜트, 12월 22일부터

크라운베이커리 인스티튜트는 12월 22일부터 24일까지 '크리스마스케이크 만들기' 행사를 개최한다.

주부, 직장인,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행사는 3일 동안 오전 10시, 오후 2시, 7시에 강좌가 진행되며 매회당 5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11월 말부터 모집하며, 참가료는 15,000원이다. ▲ 문의: 516-1717

<강인옥 / inok@mbakery.co.kr>

'제과제빵학 이론 실기' 출간 완제품 · 제조 공정 칼라로 수록

대원과학대학(충북 제천시 소재) 식품영양학과 남혜영 교수가 '제과제빵학 이론 실기'를 펴냈다.

이 책은 제과제빵 자격증 취득과 관련된 다양한 이론 및 최근 기술 문헌과 함께 국가기술자격실기시험 채점기준표를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특히 실기시험을 다루고 있는 책의 후반부에서는 공정과 완제품의 원색 사진을 실어 수험생들에게 생생한 현장감을 전해주고 있다.

저자인 남교수는 책의 서문에서 "현장에서 주먹구구식으로 배우던 제과제빵이 아닌 학문으로서 제과제빵학이 발전해야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오형석 ohs@mbakery.co.kr>

김상엽학원, 기술 특강생 모집 내년 1월 16일부터 2개월간

김상엽제과기술학원(원장 김상엽) 강남 분원이 34기 특수 기술 연구반 수강생을 모집한다.

김상엽 원장과 김현석 부원장이 직접 교육하는 이번 과정은 2001년 1월 16일부터 3월15일까지 2개월 동안 실시된다. 정통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스위스 과자 및 화과자, 초콜릿, 설탕 공예 등 다양한 데커레이션 기법을 매주 화, 목, 금(주3회) 오후 6시 30분부

연산국제제과제빵학원 개원 정규반 외 취미반 등 5개반 운영

연산국제제과제빵기술학원(원장 서홍원)이 지난 11월 5일 문을 열었다.

부산시 연산동에 75평 규모로 개원한 이 학원은 정규반, 속성반, 데커레이션반이 개설돼 있으며 그 외 주부 취미반, 자격증 특강반, 중고생 특별반을 운영하고 있다. ▲ 주소 : 부산시 연제구 연산4동 724-3번지 기업은행 3층

문의 : (051) 864-8333

<강인옥 inok@mbakery.co.kr>

협회소식

인천지회 소식

최초로 경인제과제빵학원 설립 회원 기술 향상·인력 수급 목적

지회·지부로는 최초로 인천광역시지회 전·현직 임원 40여 명이 1억 5,000여만원을 공동 출자해 경인제과제빵학원을 설립했다.

주안역 광장 부근에 위치한 이 학원은 94평 규모에 실습실 2개를 갖추고 있으며, 12월 5일 관련 업계 인사 및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원식을 갖고 본격적인 교육에 들어간다. 경인제과제빵학원은 앞으로 '중견 기술인반'과 '기초반'으로 3개월반·6개월반·1년 정구반을 운영하게 된다.

인천지회 회원들이 설립한 이 학원은 중견 기술인반을 통해 기존 기술인의 기술 향상을 꾀하고, 기초반에서 배출된 인원을 지역의 회원 점포에 공급함으로써 업계의 현안인 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문의:(032)432-4888

지회 사무실 주안동 이전

인천광역시지회(지회장 유현식)는 지난 11월에 지회 사무실을 송의2동에서 주안동으로 이전했다.

주소: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130-9 명보극장 2층

☎(032)432-4888~9 FAX:(032)432-4890

광주 북구지부 4차 정기 총회 부지부장 등 임원진 새로 구성



4차 정기 총회를 개최했다.

임원진 명단은 다음과 같다. ▲지부장: 김진철(빵굽는마을) ▲부지부장: 김영춘(솔로몬제과), 최재선(샤론제과), 김오

광주광역시지회의 북구지부(지부장 김진철)는 지난 11월 21일 프린스호텔에서 북구청 임경문 위생과장 등 관련 기관 및 인사 및 회원 63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

중(샤모니제과) ▲총무: 고점석(빛고을제과)

양천지회, 추계 단합대회 실시 포천 왕방산 등반, 화합 다져



양천지회(지회장 이동택)는 지난 10월 16일 회원 및 가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계 단합대회를 가졌다. 이날 참석 인원들은 경기도 포천의 왕방산에서 산행을 갖고, 상호간의 화합을 바탕으로 지회 발전을 위해 더 노력하기로 했다.

양천지회(지회장 이동택)는 지난 10월 16일 회원 및 가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계 단합대회를 가졌다. 이날 참석 인원들은 경기도 포천의 왕방산에서

동부지회, 추계 단합대회 실시 임원진 참석, 지회 발전 결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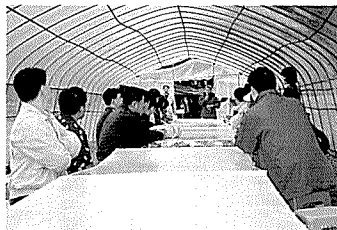


동부지회(지회장 조병천)는 지난 11월 7일 임원진 및 회원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주호에서 추계 단합대회를 실시했다. 이날 단합대회에서 조병천 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매출 하락 등 점포 경영의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데 회원간의 결속된 힘이 필요하며, 단결과 화합을 바탕으로 지회 발전에도 같이 힘쓰자"고 말했다.

동부지회(지회장 조병천)는 지난 11월 7일 임원진 및 회원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주호에서 추계 단합대회를 실시했다

이날 단합대회에서 조병

안양지부, 추계 야유회 가져 임원 및 회원 60여명 참가해



안양지부(지부장 이호식)는 지난 10월 24일 경기도 양평의 양수리에서 추계 야유회를 가졌다. 임원 및 회원이 60여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 안양지부는 회원의 결속으로 지부 발전을 위해 힘쓰기로 결의했다.

안양지부(지부장 이호식)는 지난 10월 24일 경기도 양평의 양수리에서 추계 야유회를 가졌다. 임원 및 회원이 60여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 안양지부는 회

〈협회 소식 종합/박종선 sunpark@mbakery.co.kr〉